



백화점 3사
공간혁신 경쟁
쇼핑 풍경 달라진다
L1



Life

제약사
디지털 헬스
생태계 구축
L2



기부 넘어, 지역사회 변화로 상생 온기 채우는 ‘행복 에너지’

‘얼마나 기부했는가’에서 ‘어떻게 살만해졌는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단발성 지원의 공식을 깨고, 에너지와 환경, 일자리를 잇는 촘촘한 상생의 온기를 지역사회 곳곳에 불어넣고 있다. ‘에너지 세이브’, ‘스쿨 포레스트’, 중장년 AI(인공지능) 일자리까지, 한난이 공공기업의 업(業)과 지역의 니즈를 연결하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낸다.

한난은 올해 사회공헌 비전을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행복 에너지’로 정하고 ‘친환경 에너지’, ‘희망 에너지’, ‘나눔 에너지’의 3대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과제를 운영한다. 각 과제는 공사(業) 연계, 지역발전,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사업 유형과 연결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단발성 지원 깨고, 실질적인 변화 이끌어
난방비 지원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 마라톤 열고 참가비 전액 기부
초·중학교 생태숲 조성... 환경 교육 연계

지역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자금·자문 지원
대학생 멘토링 결합해 장학금·교육 제공
중장년 강사 양성...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전국 19개 지사, 지역 밀착형 맞춤형지 펼쳐

◆ 에너지 세이브 365... ‘난방비 지원’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우선 한난의 사회공헌 사업 철학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은 ‘에너지 세이브365’다. 2006년부터 이어온 ‘사랑 ON(溫) 난방비’ 사업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올해부터 현금성 난방비 지원 중심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단열·창호·배타공사 등 에너지 효율화 시공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도 함께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난은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대구 서구·달서구·달성군, 충북 청주시, 전남 나주시, 경남 양산시 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개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에너지 공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복지’로 사업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국민의 달리기를 에너지 복지 지고로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국민 참여와 에너지 복지를 연결한 대표 사업이다. 한난이 공식 후원하고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으로, 참가비 전액을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기기 지원과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에 활용한다.

참여 국민 모두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는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 행사는 지난 9월 12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으며 약 4000명의 시민이 5km와 10km

m 코스에 참여했으며, 대회 홍보대사인 가수 선의 공연과 개회 선언, 가수 KCM의 축하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대회를 통해 약 1억7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사회공헌의 수혜자를 지원 대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까지 참여 주체로 확장하면서, 취약계층 나눔과 에너지 효율 인식제고를 동시에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한난 스쿨 포레스트... 도심 학교 생태숲을 ‘살아있는 환경교실’로

‘한난 스쿨 포레스트’는 한난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친환경 사회공헌사업으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생태숲으로 조성하고 이를 교과와 연계해 학습 체험형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성남시 소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후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위례해솔초등학교를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9월 9일 환경재단, 위례해솔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해 10월 22일 ‘한난 스쿨 포레스트’ 1호숲 조성 기념행사를 시행했다.

조성된 학교 생태숲을 활용해 학생들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을 학습하는 교과 연계형 환경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생태 관찰, 숲 돌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 우리 동네 온기 가득...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 사회 에너지·환경 문제 직접 해결

‘우리 동네 온기 가득’은 한난 사회공헌 사업의 ‘지역문제 해결’ 효과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 및 경영 자문을 지원하는 주민 체감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한난은 올해 사업 효과 및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별 지원 규모를 4개 사업 총 1.3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모와 평가를 거쳐 탄소저감형 스마트팜 상토 개발, 폐플라스틱 폐자전거 재활용, AI 기반 냉난방기기 사후 관리 등 총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4개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 지원금과 경영 전문가의 맞춤형 사업 고도화 자문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연말 성과보고회에서 사업 운영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



하는 등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과정의 고도화 자문과 점검 체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재능 Dream 희망 장학금... 대학생의 재능을 지역아동의 교육기회로

‘재능 Dream 희망 장학금’은 교육봉사를 희망하는 대학생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기초학습, 적성 교육,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면 한난이 활동을 이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상생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 2024년 처음 시행했다.

올해는 수도권 중심이던 활동지역을 경성권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멘토 43명을 선발했으며, 참여 대학생은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65시간의 교육봉사를 수행한다.

특히 AI 기초역량과 친환경 인식 교육을 의무과정으로 반영해 지역 아동에게 미래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한난 통합운영센터와 판교 열원 시설 견학, 한난 채용 정보 제공 및 진로 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과정을 실시해 참여 대학생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 취약 아동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대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사회경험을 제공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한난의 ‘지역사회 성장 지원’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 한난 AI 시니어 마스터... 중장년을 ‘AI 교육 수혜자’에서 ‘AI 강사’로

‘한난 AI 시니어 마스터’는 직무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한난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특화 사업이다.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수요가 높아지는 사회 변화에 맞춰 중장년층을 AI 디지털 문해교육사로 양성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장년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역량을 다시 지역사회에 전달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중장년에게는 새로운 직무 개발과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분들께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초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지역 밀착형 복지 사업... 전국 19개 지사가 만드는 ‘사회공헌’

한난은 전국 19개 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직접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현장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 중이다. 명절에는 취약계층 지원 물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복지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결했다. ‘전통시장 활기 삼기’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지역 내



- 1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9월 12일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 대회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했다.
- 2 한국지역난방공사 최금숙 경영관리처장(오른쪽)이 굿피플 이용기 회장(왼쪽)에게 대회 참가비를 기부하고 있다.
- 3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가운데), 이태동 에너지재단 이사장(왼쪽), 현진영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소비로 다시 이어지도록 설계한 상생 사업이다.

각 지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역 문화행사 지원 등 생활권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사회문제와 복지 수요에 맞춰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렇듯 한난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부에서 문제해결로,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체감 가능한 변화’를 이끌지 기대된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의 올해 사회공헌 활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이라며 ‘에너지 공공기업의 전문성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연결하고, 국민의 참여를 에너지복지 재원과 연결하며, 지역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 연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라스트 댄스’ 최민정, 시즌 첫 쇼트트랙 월드컵 어금1·은2·동1 수확
▲ ‘시즌 10승’ 안세영, 덴마크 이어 프랑스 오픈까지 제패 /사진 뉴시스

▲ ‘0-3→4-3 대역전극’ 김보미, 데뷔 7년 만에 L PBA 첫 우승
▲ 서울대 소장 불정심다라니경,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됐다

▲ 윤동주·김남조 시인 ‘금관’ 문화훈장...이현세·박정자 ‘은관’
▲ 전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한눈에...진흥원, 통합 안내